오리가미의 표현 기법이 나타난 현대 패션 디자인의 표현 분석

Expression Analysis of the Modern Fashion Design Used Origami's Expression Methods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강 사 최 유 진
조교수 최 정 화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Yoo Jin Choi
Assistant Professor : Jung Hwa Choi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오리가미의 표현기법이 나타난 현대 패션 디자인
Ⅳ. 오리가미의 표현 기법이 나타난 패션 디자인의 특성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Origami's formative characteristics have been used in modern fashion design usefully. This article categorized origami expression methods by making technique as three category; producing methods, organized principles and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then, this article argued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 used origami expression methods. Fashion design using origami expression methods had three characteristics; basic tailoring, decorative surface, fluidity & rhythm. The proceeding article on paper folding argued formative aspects of paper folding widely, while this study focused on origami's basic expression methods in detail and clarified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 used origami. This article's originality existed in that point. And also a result of this study would be regarded as a important sources in design processing of fashion design.

주제어(Key Words) : 오리가미(Origami), 표현 기법(Expression Methods), 패션 디자인(Fashion Design).

Corresponding Author : Jung Hwa Choi,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dong, Buk-gu, Daegu, 702-701, Korea Tel: +82-53-950-6225 Fax: +82-53-950-6219 E-mail: Jhchoi@knu.ac.kr

Ⅰ. 서 론

오리가미는 우리말로 종이 접기에 해당하는 말이다. 일찍이 1930년대에 요시자와 아키라(Yoshizawa Akira)는 전통적인 오리가미로부터 새로운 형태를 창조했으며(Jackson, 2006) 오리가미의 표현을 한층 고양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술적인 오리가미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었다.

오리가미는 20세기 초엽부터 디자인 교육과정에서 창의성 배양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오늘날 유아들의 창의적인 두뇌 개발을 위한 교육 과정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이 밖에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는 많은 디자인에 실제적으로 오리가미 기법이 편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도, 자전거, 가구, 보석, 포장, 건축 구조, 의복 등에 활용되고 있다.

오리가미는 현대 패션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패션에서 응용된 오리가미 기법은 조형적인 특징을 살린 디자인에서부터 기능적인 성능을 강조한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션 디자인의 영감이 되고 있다. 바이어스 컷(Bias Cut)이 트레이드마크(trademark)인 마들레느 비요네(Madeleine Vionnet)는 일본의 기모노와 오리가미 예술의 가능성을 탐구한 바 있으며(Lussier, 2003, p. 32),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는 3차원으로 구성된 오리가미의 조형성을 통해 인체의 새로운 형태를 구현한 바 있다. 또한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섬세한 오리가미를 통해 의복에 전해진 몸의 움직임을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변형시킨 바 있다(Vinken, 2006, pp. 70-71). 이처럼 오리가미는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기능적이며 미적인 감수성을 이끌어 내는 디자인 방법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현재까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오리가미는 의복에서의 플리츠나 주름 기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 예로는 김정신(1991)의 종이조형의 입체구성을 형상화한 복식 디자인, 김선영(1994)의 종이접기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김지영(2005)의 주름에 의한 패션 디자인, 손영미와 이수현(2004)의 플리츠 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김성진과 김언배(2004)의 현대 섬유조형 예술의 페미니즘 연구, 양희영과 양숙희(2007)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오리가미의 다양한 제작 기법을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리가미를 제작 방식, 구성 원리, 형태에 따라 분류, 고찰하여 이론적인 토대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오리가미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표현 특성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오리가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오늘날 창의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디자인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임을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는 시대적인 요구와 함께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한 아이디어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오리가미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연구와 패션 디자인에서의 실증적인 연구로 이루어진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오리가미의 개념 정립과 체계화를 위해 관련된 예술 서적, 선행연구 논문 등을 위주로 분석 · 고찰하며, 실증적 연구에서는 패션 관련 서적, 패션 잡지에서 추출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사례와 표현 특성 그리고 의의를 질적으로 도출한다.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2000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의 패션이며 각각의 자료로는 오리가미 기법이 적용된 디자인을 다양하게 추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오리가미의 개념 및 유래

오리가미란 말은 Ori-접다, Kami-종이라는 말로써 이미 헤이안 시대(794~1185)에 등장하였으나, 당시에 그것은 계약서가 진짜임을 확인하기 위해 종이를 접어 양면에 걸쳐 사인하는 것을 가리켰다고 한다. 신이라는 뜻의 '가미(神)'와 종이라는 뜻의 '가미(紙)'의 발음이 일치한다(진중권, 2005, pp. 319-321)는 점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영어로는 paper folding이라고 한다. 오리가미를 위한 종이는 프뢰벨의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릴리안 오펜하이머(Lillian Oppenheimer)에 의해 오리가미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

A.D. 1, 2세기경에 중국에서 발생하여 6세기에 일본에 전파된 오리가미는 헤이안 시대에는 특히 일본 귀족의 의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Engel, 1994, p. 23). 일본에서는 정교한 오리가미 형태가 약 1200년 전부터 개발되었으며 대개 상징적이거나 의례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일본의 종이접기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 내기 보다는 내면세계를 담아내는 표현 방식의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회화나 조각과 마찬가지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 간주되었다. 오리가미 기법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일본 문화에 정착하게 되는데 헤이안 시대에는 상류계급 사이에서 격식을 갖추는 용도의 것이었다. 무사들은 전복이나 말린 고기조각과 종이를 접어 만든 행운을 비는 징표인 노시로 장식한 선물을 주고 받았고, 귀족들은 신랑과 신부를 의미하는 종이 나비 한 쌍이 장식된 술잔을 들고 결혼을 축하했다. 이는 한번 펼쳐 본 후에는 원래대로 접을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게 고안된 것이었다.

무로마치 시대(1338~1573)에는 종이가 귀한 물건이었기에 때문에 오리가미는 상급 무사들의 계층을 구분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도쿠가와 시대(1603~1867)에 들어서면 오리가미는 일반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예술 문화로 발전하게 된다. 오리가미에 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인 「천 마리의 학 접는 방법」을 통해 이 시대에 이미 '새 접기'가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기본 접기가 설명되어 있으며 이것을 토대로 단순한 새의 형태에서 부터 정교한 모습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다. 1845년에는 최초로 여러 가지 오리가미 기법을 모아놓은 「한겨울의 창」이 출간되었다(Beech, 2006).

이와 같이 오리가미는 단순히"종이를 접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일본에서는 의례적인 의생활에 활용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오리가미는 놀이문화의 일부분이 되어 대중적인 예술 문화로까지 발전하였다.

2. 오리가미 디자인의 교육과 응용

오리가미를 디자인의 기초 요소로 생각하고 교육에 접목시킨 사람은 독일 바우하우스에서 옵티컬과 미니멀아트의 선두주자였던 조셉 알베르(Joseph Albers)이다. 그는 1920년대부터 원, 나선 그리고 굽어진 형태를 창조하기 위해 오리가미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Kasahara, 2003, p. 7), 디자인 전공 학생들에게 이러한 오리가미의 접기 테크닉 교육은 3차원 공간에서 2차원의 평면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오리가미는 단순히 종이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전 세계의 종이접기 애호가들은 '접는다'라는 원칙만 두고, 여러 재료를 이용한 실험을 계속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레인 앨런(Lane Allen)이 소개한 '오리카네(Orikane)'는 가는 철망을 구부려 사용했다. 또한 미국의 제레미 샤퍼(Jeremy Shafer)는 매우 섬세한 은박지와 얇은 금속판을 이용해 실제로 사용가능한 '손톱깎이'를 만들었다. 영국의 데이비드 브릴(David Brill)은 종이접기로 만든 배를 병 속에 넣은 놀라운 디자인을 발표했으며, 미국의 메트 페더슨(Mette Pederson)은 같은 모형을 여러 개 모아 만든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Beech, 2006, pp. 6-7) 오리가미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은 작품은 다양한 재료로 새로운 제작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오리가미의 창작 범위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오늘날 디자인에 나타나는 오리가미는 냅킨, 지도, 자전거, 가구, 보석, 포장, 건축 구조, 의복 등 다양한 분야에 편재하고 있다. 이는 또한 기존의 종이라는 한정된 재료로 한 장을 자르거나 풀로 붙이지 않고 접기만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에서부터 다양한 재료와 응용된 방법으로 디자인 분야에 확대 ·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리가미 기법의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오리가미의 표현 기법에 따른 유형 분류

3.1. 제작 방식에 따른 분류

오리가미는 기본적으로는 연결된 한 장의 종이로 작업을 하지만 다양한 조형 효과를 위해 컷을 넣어 연결하는 방법과 무수히 많은 유닛을 작업하여 조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각각 한 장형, 연결형, 유닛형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한 장형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장의 종이를 가지고 작업을 하며 종이 자체의 접힘이나 구김만으로 형태를 변형하는 경우〈그림1, 2〉이다. 연결형은 완전히 절단하지 않고 컷을 넣어 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조형을 만들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그림3, 4〉이며, 유닛형은 각각의 완성된 파트를 조합하는 방식인데 오리가미에서는 평면형이나 큐브형〈그림 5〉, 구형〈그림 6〉 등으로 완성된다.

〈그림 1〉 한 장형

〈그림 2〉 한 장형

〈그림 3〉 연결형

〈그림 4〉 연결형

〈그림 5〉 유닛형

〈그림 6〉 유닛형

3.2. 구성 원리에 따른 분류

오리가미의 형태는 구성 원리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하다. 선의 배열에 의한 괘선원리, 등변 혹은 이등변 배열에 의한 삼각원리, 임의의 주름선과 불규칙 면에 의한 구김원리가 있다.

〈그림 7〉 궤선원리

〈그림 8〉 궤선원리

〈그림 9〉 삼각원리

〈그림 10〉 삼각원리

〈그림 11〉 구김원리

먼저 선의 배열에 의한 괘선원리는 일렬로 규칙적인 구불구불한 선과 엇갈리는 선으로 구성되는 패턴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괘선은 접힌 종이에 탄성을 더하고 비틀림을 쉽게 한다. 궤선원리는 오리가미 기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원리인데 크게는 접혀진 면〈그림 7〉과 접혀지는 과정에서 생긴 선의 흔적〈그림 8〉에 나타난다.

두 번째, 삼각원리는 등변 혹은 이등변 삼각형의 평평한 패턴을 포함한다. 삼각원리의 오리가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접혀짐과 펼쳐짐의 과정을 반복해 완성된 닫힌 삼각형의 조형성을 나타내는 방식〈그림 9〉이며, 두 번째는 접힌 다음 펼쳐진 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선의 흔적에 의해 삼각형의 조형을 나타내는 방식〈그림 10〉이다. 여기서 후자는 불확정적인 접힘의 특성을 나타내며 유동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세 번째는 임의의 주름선과 불규칙한 면에 의한 구김원리〈그림 11〉이다. 구김 원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으로 3차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표현 기법이며, 주름잡기, 누르기, 포장하기와 같은 작업과 관련된다(Vyzoviti, 2006, pp. 8-9).

3.3. 형태에 따른 분류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형태는 크게 기하학적 형태와 유기적 형태로 나뉜다. 기하학적 형태는 주로 인간이 만든 인위적이며 추상적인 사물에 나타나며 유기적인 형태는 자연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추럴한 형태에서 나타난다. 기하학적 형태는 직선과 원을 사용함으로써 창조되는 반면 유기적 형태는 감지할 수 없는 변이 혹은 돌출된 결합을 가진 부드럽게 흐르는 곡선으로 구성되며 보다 섬세한 부분을 보여준다(Wong, 1993, pp. 155-172). 또한 유기적 표현은 부드럽고 단순하며 정돈되어 있어 아름다운 느낌을 주며, 유동성과 신장을 표시해 주는 효과를 나타낸다(한석우, 1993, p. 43).

오리가미 디자인도 어떤 특정한 룰에 의해 만들어지는 퍼즐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와 정해진 규칙이 없이 자유로운 형태로 접혀진 유기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기하학적 형태의 오리가미〈그림 12〉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존하며, 섬세함과 정확함이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는 직선, 수직선, 수평선, 좌우 대칭, 반복, 정교함, 기하학을 가진 창조적 연결 또는 기술적인 원리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 조각들은 일반적으로 체계와 규칙에 따라 논리적이며, 구조화되어있다. 유기적 형태의 오리가미〈그림 13〉는 개인적이며 자연스러운 작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질감이 있는, 감정적인, 개인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특성을 가진다(Jackson, 2006, p. 120).

〈그림 12〉 기하학적 형태

〈그림 13〉 유기적 형태

Ⅲ. 오리가미의 표현기법이 나타난 현대 패션 디자인

1. 제작 방식에 따른 분류

오리가미의 제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장의 종이를 가지고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 과정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다. 한 장의 패브릭으로 구성된 의복은 주로 봉제와 재단이 필요 없는 디자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식은 의상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작 방식으로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의상 제작 방식의 하나이다. 한 장의 패브릭을 접거나 주름을 잡아서 만든 의복은 고대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로마와 같은 문명 발상지에서

〈그림 14〉 09 S/S Haider Ackermann

〈그림 15〉 05 S/S Lanvin

〈그림 16〉 04 S/S Balmain

〈그림 17〉 09 S/S Talbot Runhof

〈그림 18〉 09 S/S Moschino

〈그림 19〉 05 S/S Viktor & Rolf

〈그림 20〉 09 S/S Versace

〈그림 21〉 08-09 F/W Giles

착용되었던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체의 일부에 간단히 걸치거나 전체에 헐렁하게 둘러 입는 식의 밀착되지 않는 이러한 형태의 의상은 드레이퍼리(drapery)형 의상이라 불리며, 20세기에 들어서서는 마들렌느 비오네(Madelaine Vionnet)에 의해 재현되었다. 이 의상은 바이어스 컷으로 인체의 선을 자연스럽게 살리면서 유동하는 드레이퍼리를 그 특징으로 한다.

하이더 에커먼(Haider Ackermann)은 09년 S/S 컬렉션에서 고대, 그리스의 드레이퍼리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그림 14〉을 발표했다. 〈그림 15〉는 05년 S/S 컬렉션에 발표된 랑방(Lanvin)의 작품으로 특별한 컷팅없이 주름잡힌 패브릭을 몸에 둘러 입는 방식의 한 장형 오리가미 방식을 보여준다. 〈그림 16〉은 04년 S/S 컬렉션에 발표된 발만(Balmain)의 디자인으로 주름이 없는 평면적인 패브릭을 몸에 헐렁하게 걸쳐 입은 한 장형 오리가미의 제작방법과 유사한 방식을 보여준다. 〈그림 17〉에서는 입체적인 재단 기법으로 장방형의 패브릭을 인체에 피트하게 드레이핑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법들은 오리가미의 한 장형의 제작방법과 동일한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장으로 구성된 오리가미는 주로 인체의 선을 자연스럽게 살리는 방식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 장형의 제작 방식으로 인한 단조로움은 오리가미의 연결형의 제작 방법으로 극복될 수 있다. 한 장형의 단순함을 극복하기 위한 오리가미의 연결형과 같이, 패션 디자인에서는 각각의 패브릭을 봉제 기법을 최소화하여 연결하는 방식으로 단순함이 극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형으로 〈그림 18〉과 〈그림 19〉와 같이 무수히 많이 컷팅된 패브릭을 연결하여 묶어주는 경우와 〈그림 20〉과 같이 조각난 천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결하여 유기적인 조형성을 연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또한 〈그림 21〉과 같이 테이프상의 패브릭을 무한으로 연결한 표면 장식 또한 연결형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리가미의 제작 방식 중의 하나인 유닛형은 의상의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리가미의 유닛형은 각각의 유닛을 제작하여 이를 접착제를 바르지 않고 형태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방식을 말하지만 패션 디자인에서는 종이와 성질이 다른 패브릭을 사용하기 때문에 봉제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오리가미의 구성원리가 응용된 파트를 제작하여 봉제를 통해 무수히 많이 연결한 경우를 이에 포함시켰다. 〈그림 22〉는 06-07년 F/W 컬렉션에서 발표된 입생 로랑의 의상으로 오리가미 기법이 나타나는 꽃 모양의 유닛이 무수히 연결되어 장식적인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다. 06년 S/S 밀라노 컬렉션에서 발표된 모스키노(Moschino)의 작품〈그림 23〉 또한 각각의 유닛형의 오리가미 장식이 연결되어 의상의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오리가미형의 유닛이 의상의 실루엣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장식적인 효과에만 도입되어 나타난 경우가 〈그림 24〉와 〈그림 25〉이다. 각각은 무수히 많은 완성된 오리가미형의 장식이 의상의 표면에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림 22〉 06-07 F/W Yves Saint Laurent

〈그림 23〉 06 S/S Moschino Chaep & Chic

〈그림 24〉 08-09 F/W Erdem

〈그림 25〉 09 S/S Frankie Morello

〈표 1〉 오리가미의 제작방식이 나타난 현대 패션의 표현 방법

오리가미 제작방식	현대 패션에서의 표현 방법
한장형	· 드레이퍼리형 · 비여밈방식의 평면적인 구성 · 입체 구성으로 간단하게 인체에 드레이핑한 형태
연결형	· 컷팅된 패브릭을 매듭 · 조각난 천을 나열하여 연결 · 테이프상의 패브릭을 연결
유닛형	· 오리가미의 조형성을 가진 장식을 연결하여 실루엣을 형성 · 무수히 많은 오리가미형의 장식을 의상의 표면에 반복적으로 배치

2. 구성 원리에 따른 분류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오리가미의 구성원리는 궤선원리, 삼각원리, 구김원리가 있다. 패션에서 나타난 오리가미의 괘선 원리는 패브릭이 플리츠, 개더 등과 같은 기법으로 반복적으로 접혀져서 만들어지는 직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패션 디자인에서는 다양한 궤선이 나타나지만 오리가미의 궤선원리가 나타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우어 살펴볼 수 있다. 각각은 접혀진 면과 면사이에 형성된 궤선과, 접는 과정에서 생기는 선의 흔적이다. 〈그림 26〉에는 상의 앞부분에 턱이 잡혀 무수히 많은 수평선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아츠로 타야마(Atsuro Tayama)의 스커트 디자인〈그림 27〉에서는 반복적으로 접혀진 면과 면 사이에 궤선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8〉의 지방시(Givenchy) 디자인에서는 블라우스의 디테일에 플리츠의 궤선원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궤선원리를 이용한 디자인에서는 궤선의 한쪽 면이 의상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 〈그림 29〉의 미우 미우(Miu Miu)의 디자인에서는 이미 오리가미의 궤선원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힌 면을 다시 펼쳐서 나타는 선이 무수히 많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궤선원리의 디자인은 신체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며 그 움직임에 따라 자유롭게 유동하는 특성이 있다.

오리가미의 삼각 구성원리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는 데 하나는 접혀서 고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삼각형의 조형성이며, 다른 하나는 접힘과 펼쳐짐의 반복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선에 의한 삼각 조형 효과이다. 우선 접혀서 고정된 경우는 주로 오리가미의 접기 기법을 패션 디자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인데, 패브릭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접기 놀이로 접었던 꽃이나 딱지와 같은 형태로 접기를 한 것과 같은 디자인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오리가미의 삼각원리는 패브릭의 가공 단계에서 표면 가공 처리로 부여된다. 이러한 삼각 원리의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는 디자이너로는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림 30〉에서 미야케는 열가공처리를 통해 의복 표면에 무수히 많은 삼각형의 조형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는 직선으로 규칙적으로 구성된 플리츠와는 달리 유동적이고 불규칙적인 의복 형태를 만들어 낸

〈그림 26〉 07 S/S Issey Miyake by Naoki Takizawa

〈그림 27〉 01 S/S Atsuro Tayama

〈그림 28〉 08-09 F/W Givenchy

〈그림 29〉 09 S/S Miu Miu

〈그림 30〉 08 S/S Issey Miyake

〈그림 31〉 08 S/S Malandrino

〈그림 32〉 07 S/S Rick Owens

〈그림 33〉 09 S/S Lanvin

〈그림 34〉 08-09 F/W Sophia Kokosalaki

〈그림 35〉 06-07 F/W Chloe

다. 〈그림 31〉의 소피아 코코살라키(Sophia Kokosalaki)의 디자인에서도 패브릭 가공 단계에서 만들어 진 삼각원리가 나타난다.

패션 디자인에서의 구김원리는 의복을 입체 제작하기 위한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쳐짐이나 주름으로 나타난다. 주름은 크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주름과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주름으로 구분되는데, 플리츠나 개더같이 기능성이나 장식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주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주름이며, 여기서 살펴본 구김원리는 패브릭의 드레이프성으로 자연스럽게 생겨 난 주름이나 구김을 의미한다. 〈그림 32〉의 릭 오웬(Rick Owens)의 작품과 랑방(Lanvin)의 작품(그림 33)에서 의상은 드레이프성이 풍부한 패브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드러운 종이를 접었을 때의 기법과 유사하다. 〈그림 34〉와 〈그림 35〉는 드레이프성을 이용한 구김보다는 섬유 자체에 가공으로 구김을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장식적인 표면효과만을 부여한 경우인데 이러한 형태도 크게 구김원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

〈표 2〉 오리가미의 제작방식을 응용한 현대 패션의 표현 방법

오리가미 구성원리	현대 패션에서의 표현 방법
궤선원리	· 플리츠, 개더 · 반복적인 폴딩 기법으로 생기는 직선의 조형
삼각원리	· 섬유 표면에 주름 가공, 엠보싱 가공 처리 · 폴딩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조형
구김원리	· 드레이퍼리의 입체적 표면 · 섬유 표면의 구김을 표현

3. 형태의 특성에 따른 분류

앞서 분류한 오리가미의 기법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은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진 디자인과 유기적인 형태를 가진 디자인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하학적인 형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직선, 수직선, 수평선, 좌우 대칭, 반복, 정교함이 그 대표적인 특성인데, 앞서 살펴본 3.2에서의 궤선원리와 삼각원리가 여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그림 36〉에서와 같이 표면에 장식성을 부여하기 위한 오리가미 기법의 디자인과, 〈그림 37〉과 같이 궤선원리와 삼각원리가 조합된 경우, 〈그림 38〉과 같이 오리가미 기법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패브릭 디자인과 연결되어 기하학적인 특성이 강조되어 있는 경우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림 36〉 06-07 F/W Victor & Rolf

〈그림 37〉 04 S/S Gres by Koji Tatsuno

〈그림 38〉 08-09 F/W Chapurin

이와 달리 〈그림 39〉와 같이 프릴이 반복적으로 구성된 경우는 프릴의 가장자리 선이 만들어 내는 유동하는 부드러운 선으로 인해 유기적인 형태를 구성한다. 〈그림 40〉과 〈그림 41〉과 같이 불규칙적인 주름의 반복으로 만들어 진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곡선 또한 유기적인 조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림 39〉 08 S/S Chapurin

〈그림 40〉 08 S/S Sophia Kokosalaki

〈그림 41〉 05 S/S Sophia Kokosakaki

〈표 3〉 오리가미의 형태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 패션의 표현 방법

형태적 특성	현대 패션에서의 표현 방법
기하학적 형태	· 궤선과 삼각원리의 반복 · 반복적인 폴딩 · 표면의 장식적인 디자인과 폴딩 기법으로 만든 입체적인 장식과의 조화
유기적 형태	· 프릴 · 불규칙적인 주름의 반복 · 자연스러운 주름의 규칙적인 배열

Ⅳ. 오리가미의 표현 기법이 나타난 패션 디자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오리가미의 표현 기법이 나타난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기본적인 착장형, 장식적인 표면 디자인, 움직임과 리듬감이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기본적인 착장형

앞서 살펴 본 디자인 중에서 한 장형의 패션 디자인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제작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된다. 한 장의 패브릭으로 구성된 패션은 한 장형의 오리가미 기법이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구김에 의해서만 제작하는 것과 유사하게, 봉제와 재단이 필요 없는 디자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그리스, 로마 복식과 같이 드레이퍼리를 이용하여 만든 의상, 한복과 같이 평면적으로 구성한 의상, 입체 구성 방식으로 인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살린 의상이 포함된다.

2. 장식적인 표면 디자인

오리가미에 의한 장식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섬유에 처리된 가공에 의한 텍스처 효과이며 다른 하나는 오리가미의 폴딩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적인 입체감에서 오는 장식적인 텍스처 효과이다.

먼저, 섬유에 처리된 장식적인 가공에 의한 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열고정 가공으로 만들어지는 주름이 있다. 기계주름은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날이 있는 롤러 위를 통과시켜 가열함으로써 만들 수 있으며 신체의 선을 이용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김지영, 2004). 최근에는 신소재의 개발과 가공 테크닉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름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규칙적인 요철효과 외에 불규칙한 요철, 구김, 물결모양, 주름, 세로 홈 새김 등의 다양한 엠보싱 효과를 부여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김은애 외, 2000, pp. 188-189). 두 번째로는 섬유자체에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닌 평면의 섬유에 봉제 기법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변화를 가하여 장식성을 부가한 텍스처 효과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식적인 텍스처 효과를 내는 대표적인 방법이 드레이퍼리를 이용한 입체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컷팅형, 유닛형, 궤선원리, 구김원리의 패션 디자인이 장식적인 텍스쳐 효과를 내는 대표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다.

3. 움직임과 리듬감

의상에서의 움직임은 의복이 인체에 입혀짐으로 나타나는 인체의 움직임에 종속적인 움직임과, 의복의 구성이나 디테일에 의한 의상 자체의 움직임으로 나누어 지는데(이상례, 임영자, 1993), 오리가미의 표현에 의해 형성되는 조형은 주로 인체의 움직임에 종속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디자인 중에서 오리가미의 한 장형과 삼각원리, 구김원리가 이용된 패션 디자인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표현 형태로 인해 인체와 의상사이에 공간을 형성하며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플리츠는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의상에 구성된 선이 직선에서 사선으로 변화하거나 사선에서 곡선으로 변하기도 한다(이유경, 1994). 오리가미의 궤선원리의 패션 디자인인 플리츠의 접혀진 형태는 내부와 외부로 분류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면은 균등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고정되지 않고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유동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드레이퍼리에 의해 형성되어 진 구김 원리의 패션은 봉제에 의해 고정되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용자의 동작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오리가미의 표현 기법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는 반복적인 접힘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접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연속되는 선은 보는 사람들에게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반복은 형태와 형태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동일한 패턴의 연속을 뜻하며, 이러한 반복은 리듬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패션 디자인에 의한 리듬은 특정한 선(형), 색채, 재질을 의도적으로 의복의 여러 부분에 반복

시킴으로써 형성되는데, 본 연구에서 살펴본 플리츠, 개더로 대표되는 궤선원리의 표현, 불규칙한 유기적인 조형의 주름, 표면 가공으로 만들어 낸 삼각형의 구김 등은 접힘의 반복에 의해 리듬감을 생성한다.

Ⅴ. 결 론

패션 디자인에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 조형성이 응용되어 나타나는데, 오리가미 또한 그러한 기법 중의 하나로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오리가미 기법의 활용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디자이너들의 영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리가미의 표현 기법을 제작 방식, 구성 원리, 형태로 나누어 원리를 고찰했으며 그 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 패션 디자인의 방식에 따라 디자인을 분류, 고찰하였다.

첫 번째, 오리가미의 제작 방식이 응용된 패션 디자인 중에서 한 장형으로는 패브릭의 드레이퍼리를 이용해 걸쳐 입는 스타일, 한복과 같이 특별한 입체적인 봉제가 없는 평면형 의상, 입체 구성으로 간단하게 인체에 드레이핑한 형태가 있으며, 연결형의 경우는 동일한 형태의 조각 패브릭이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리가미의 유닛형의 디자인은 접착제를 바르지 않고 조합에 의해 연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패션 디자인에서는 오리가미 형태의 장식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두 번째, 오리가미의 구성원리가 응용된 패션 디자인 중에서 궤선원리의 경우는 플리츠와 개더와 같이 직선을 특징으로 하는 주름이 대표적이었으며, 삼각원리에서는 표면에 구김가공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주름이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구김원리는 의상 특유의 드레이프성을 이용한 불규칙적인 주름에 나타났다. 이 각각은 의상에 고정된 형태일 경우는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유동하지 않지만, 오리가미 형태 사이에 공간이 존재할 경우는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롭게 유동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세 번째, 오리가미의 형태적 특성이 응용된 패션 디자인은 기하학적 형태와 유기적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기하학적 형태는 규칙적인 직선 접기의 반복으로 나타나며, 유기적 형태는 불규칙적인 주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형태에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오리가미의 표현기법이 나타난 패션 디자인의 특징을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패션 디자인은 가장 기본적이며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디자인 형태이며, 거의 모든 디자인에는 공통적으로 장식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접힘이나 구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디자인은 착용자의 움직임에 의해 유동하는 특징과 반복적인 구성으로 인해 형성되는 리듬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오리가미의 표현 기법에 따라 패션 디자인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고찰한 논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종이조형의 일부분으로 오리가미를 다루었으며, 구체적으로 오리가미의 방법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오리가미 본연의 표현 기법을 조형적인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으며 그 각각에 대한 디자인적 특성을 고찰한 점에 연구의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성과는 현대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실제적으로 디자인을 고안하는 단계에서 발상 기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김선영(1994). 종이접기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성진, 김언배(2004). 현대 섬유조형예술의 페미니즘 연구-주름의 이미지 표현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5**(1), 130-146.

김은애, 김혜경, 나영주, 신윤숙, 오경화, 유혜경 외(2000). **패션소재기획과 정보**. 서울: 교문사.

김정신(1991). 종이조형의 입체구성을 형상화한 복식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지영(2004). 표면장식에 의한 의상디자인 연구-봉제기법에 의한 입체적 표면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지영(2005). 주름에 의한 패션디자인-2000년대 이후 여성패션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5), 249-265.

손영미, 이수현(2004). 플리츠 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복식, 54**(6), 153-168.

양희영, 양숙희(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라이프니츠와 들뢰즈를 중심으로-. **복식, 57**(1), 130-146.

이상례, 임영자(1993). 현대 의상에 나타난 움직임의 표현성. **복식, 20**, 125-135.

이유경(1994). 주름의 조형성을 이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진중권(2005).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서울: 휴머니스트.

한석우(1993). **입체조형**. 서울: 미진사.

Beech, R.(2006). **종이접기 배우기**. 안소희(역). 서울:

넥서스북. (2005년 원저발간)
Engel, p.(1994). *Origami from Angelfish to Zen*. Mineola: New York: Dover Pub., Inc.
Jackson, p.(2006). *Artistry in Paper*. New York: Kodansha international.
Kasahara, K.(2003). *Extreme Origami*. New York: Sterling.
Lussier, S.(2003). *Art Deco Fashion*. London: V&A Publications.
Vinken, B.(2006). *Fashion Zeitgeist*. New York: Berg.
Vyzoviti, S.(2006). *Supersurfaces*. Gingko Press, Inc.
Wong, W.(1993). *Principles of Form and Desig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접 수 일 : 2009년 1월 9일
심사시작일 : 2009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 : 2009년 3월 19일